

“관할 옮겨달라” 전두환 또 재판 지연 꿈수

광주서 재판 못 받는다며 서울 이전 신청...다응달 1일 재판 연기 사자명예훼손 혐의 4차례 모두 불출석...방청권 추첨 일정도 취소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로 예정됐던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여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꿈수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제1형사부 최수환 부장판사)에 사자명예훼손 사건(광주지법 2018고단1685)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전에 달라는 내용이 담긴 관할이전 신청서(광주고등법원 2018초기37 관할이전)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에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

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때 등에 한해 검사는 직권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해야하고,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할이전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였고 지방 민심 등으로 광주에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광주지법의 직권(直權·직권·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관할)이전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을 연기하고, 변경되는 기일은 추후 지정할 방침이다.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방청권 추첨 일정도 취소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법원이 4차례나 보낸 소환장에 대해 모두 불출석으로 맞선 것이다. 지난 5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이상 신청을 냈다. 또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연기신청도 두 차례 냈다.

이 때문에 당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9월 내에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전 전 대통령이 추석을 지난 뒤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데 따라 10월 1일로 재판 일정을 잡았다. 이후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을 불고 일주일 넘겨두고 관할 이전 신청을 해 또 다시 재판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내달 1일 재판이 연기되면 법원은 5번째 소환장을 발부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폐년 회고록에서 5·18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폐년 회고록에서 5·18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9월 내에 재판을 진행할

“누가 돌보나” 지적장애 동생 살인미수 6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 선처

처지를 비관해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밤 10시경 전주 시내 한 병원 입원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동생(58)이 잠든 틈을 타 수액 링거에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담당 간호사가 수액색이 붉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링거 주사바늘을 분리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무직인 A씨는 수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머물던 동생이 뇌막염으로 입원하자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고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친동생인 피해자가 입원해 투약 중이던 수액 링거 호스에 독극물을 주입,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피해자 혈액 농약 중독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실제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확정

부인 서해순씨 신청에 대법 “의혹 근거 충분”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

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서연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을 서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 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전두환 5·18때 주도적 역할 입증 자료 공개

5·18기록관, 자위권 발동 회의 참석 등 행적 드러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에 관여한 바 없다고 기술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2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의 5·18 연관 행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은 12·12의 성공으로 사실상 계엄사령관이자 국군통수권자였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 자료와 법원 판결문, 보안사령부가 1982년 폐년 ‘제5공화국 전사(前誌)’ 등을 토대로 5·18 당시 전 전 대통령의 행적을 재구성, 전 전 대통령의 5월 행적을 새롭게 조명했다.

5공 전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직후부터 정권찬탈의 움직임을 보이며 최대 걸림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집중 사살한다. 또 1980년 2월18일 육군본부는 1·2·3 야전군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치안본부장에게 ‘충정훈련’(폭동진압훈련)을 조기 실시해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훈련계획은 보안사가 작성했다.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이후 김 전 대통령의 고향 지역인 광주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5월18일 오전 전남 대학교 학생들이 금남로 요충지를 보안사는 공수부대 증파를 요청했다. 군인이 시위대에 밀리고 있다는 이유였다.

‘5공 전사’ 제3장 ‘광주사태’의 ‘계엄당

국의 적극 대응’을 살펴보면 “(5월) 19일부터 전례 없이 매격일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수뇌가 국방부 회의실에 모여 2군사령부와 광주의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부터 올라오는 매일의 상황보고에 따라 (광주)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결정했다”고 나와있다.

또한 ‘5공 전사’에는 5월21일 국방부에서 열린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는 회의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다.

정석환 당시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도 검찰 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이 전남도청 앞 광장 집단발포 다음날인 5월22일 최종 11공수여단장에게 격려금(100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안사의 ‘광주소요사태 관련철’에도 도청 진압 작전 하루 전인 5월26일 공수부대원들에게 6300만원의 격려금과 증식용 소 7마리가 전달됐다고 나와있다. 격려금을 보낸 사람은 대통령(3000만원)과 육군참모총장(3000만원), 보안사령관(300만원)이었다.

나아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할 일이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전두환의 5·18 행적을 밝혀낸다면 발표명령자나 임명장, 행방발명자 등도 자연스레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추석 뒤 쓰레기 쓰레기 많네

추석연휴가 끝난 27일 광주시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용봉동 주택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택시기사 폭행한 조폭 입건

광주 서부경찰은 “운전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신양관광과 조직원 입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인 입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자를 하던 김모(21)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어디에 세워드릴까요”라고 묻자 반말을 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입씨는 경찰의 관리대상 폭력조직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기사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편의점 여성 종업원 성희롱하고 행패 부린 50대 “술 취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종업원을 성희롱 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경찰서행.

○...27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지난 26일 밤 10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 A(25)씨에게 “당치가 큰데 가슴은 더 크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

며, 이에 화가 난 A씨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고향을 지르는 등 20여분간 편의점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김씨는 또 자신의 폭력 행위를 말리는 편의점 손님인 B(45)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